



16일 오전 전북 전주시내를 관통하는 삼천에서 물고기 수천마리의 사체가 떠올랐다. (사진=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폭염·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에 떼죽음 당한 삼천 물고기

하천에 산소농도 떨어져 발생 추정
전북환경운동연합 "양수펌프 이용을"

16일 오전 전주시내를 관통하는 삼천에서 수천마리의 물고기 사체가 떠올랐다. 삼천을 건너기 위한 다리인 마전교와 홍산교 사이에는 모래무지, 잉어, 피라미, 갈겨니, 배스 같은 물고기 사체가 즐비한 상황이다. 이번 물고기의 떼죽음은 재난 수준의 폭염과 지난 밤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 때문에 하천에 산소농도가 떨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한 상태에서 갑자기 내린 소나기가 오염물질들을 삼천으로 유입시켜 산소농도가 급격히 떨어졌을 것이라는 게 환경단체 설명이다. 물고기들이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로 올라왔다가 폐사했다는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떼죽음이 발생한 지점은 하천 하중도와 퇴적토로 정체 수역이 형성된 곳이어서 피해가 컸다. 하천이 오염원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양수펌프를 이용해 정체 수역에 물을 뿌려서 대기 중의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들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송효철 기자

'직원 격려금 횡령' 신연희 1심 재판서 징역 3년 실형

횡령·직권남용·증거인멸 교사 전부 유죄
"모든 혐의 부인 일관...잘못 안 뉘우쳐"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구속기소) 전 강남구청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날 횡령,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신 구청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신 전 구청장에 대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일관하고 잘못을 안 뉘우친다"며 "특히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도록 했고 이 돈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팔복예술공장, 문화 플랫폼 역할 '톡톡'

20여 년간 버려졌던 폐공장을 문화·예술로 재생된 팔복예술공장이 국내·외 작가들의 전시회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지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팔복예술공장에는 지난 3월 말 개관 이후 현재까지 총 3만1000여 명이 방문하면서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폐 카세트 공장이었던 이곳이 전주시민들이 문화를 창조하고, 소비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놀이터의 역할을 하고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공식 개관한 팔복예술공장은 개관 이후 미국문화주간 특별 사진전과 전주지역 건축학과 대학생들의 졸업작품 전시회 등 크고 작은 예술 전시회

지난 3월말 개관 이후 3만1000여명 다녀가
올 하반기 전시 등 시민위한 프로그램 마련

가 이어지고, 전주시·국도교통부·국토연구원 주관 '제1차 도시재생 광역 협치포럼(전북권)'과 전국 50여개 프리마켓 셀러가 참여한 보부상 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면서 지난 14일까지 약 4개월 여 동안 총 3만1,481명이 다녀갔다.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올 하반기 기획 특별전과 입주작가 기획전, 이동형 갤러리 '꽃심' 참여작가 전시회' 등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내년 6월이면 유휴공간을 활용

한 문화예술교육센터인 팔복예술공장 2단지인 '전주 꿈꾸는 예술터'도 개관할 예정이어서 문화예술교육 허브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팔복예술공장에서는 개관에 앞서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자유학기제 예술교육 프로그램', '야호학교 학교 밖 예술교육 프로그램', 팔복새마을을 주민 대상 '지역 협력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도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팔복예술공장 2단지 사업

으로 국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입해 실내 예술교육공간(475㎡)과 실외 예술놀이터(475㎡), 예술융합공간(350㎡), 어린이놀이책방(112.5㎡) 등을 갖춘 팔복예술공장 2단지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팔복예술공장의 가치는 두 가지에 비롯된다. 바로 '도시의 기억'과 '예술의 힘'이다. 도시의 기억을 예술의 힘으로 살려낸 팔복예술공장은 전주를 더 전주스럽게, 주민을 더 자랑스럽게 만들어낸 대표 문화공간"이라며 "앞으로 팔복예술공장과 함께 있는 금학천의 생태하천 복원, 팔복 철길의 '예술기차길'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성정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네 꿈을 펼쳐라'... 새만금잼버리 유치 1주년 기념식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유치 1주년 기념식이 1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 공민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등 도·시군 단체장, 김충희 국회의원, 전북도의회 의원 등 관계자들이 2023 세계잼버리 비전선포식을 갖고 박수를치고 있다.

전주시, 내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공익활동 수행 사회단체·비영리법인 대상
31일까지 해당사업별 담당부서에 신청해야

전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시정 주요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19년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은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지원하는 전주시 예산 중 공모절차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전주시에 근거를 두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이 있어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은 법률과 조례에 지원근거가 규정돼 있어야 한다. 특히, 시는 지난해부터 시정 중점 추진사업을 선정해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첫마중길 활성화 연계사업 △청년활동

지원사업 △역사, 다문화, 장애인 지원사업 등 도시·경제·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신청 사업에 대해서는 11월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시정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선정할 후, 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 단체는 전주시 홈페이지(www.ponju.go.kr)의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해당 사업 관련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립 평화도서관
인문독서 아카데미 3차 운영

전주시립 평화도서관은 오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도서관 2층 세미나실에서 2018년도 인문독서아카데미의 3차 과정을 운영한다. 인문독서아카데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평화도서관은 수행기관에 선정돼 오는 9월까지 전주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인문학 주제(전북의 소리)로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3차 강의는 '전북의 소리, 판소리'를 주제로 최동원 군산대학교 교수가 진행하며, 매주 △판소리의 기원 △소리꾼 △고수 △동편제와 서편제 △판소리사를 주제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는 강의로 5주 동안 시민들을 만나게 된다. 이에 앞서, 평화도서관은 10주간 진행된 지난 1·2차 과정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유학의 가르침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전 북지역 가요의 발전사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진행한 바 있다. /송효철 기자

'노송동 얼굴없는천사' 벽화로 담는다

18년간 해마다 이어져 온 전주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김동 스토리가 벽화로 담겨지게 된다. 전주시는 노송동 문화마을 일원에 '얼굴 없는 기부 천사'를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해 마을주민과 마을을 찾는 방문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부 천사의 감동을 벽화로 표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주민참여 마을개선 희망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3000민원을 들여 노송동 천사길 담장벽화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주민 참여를 통해 담장벽화 조성이 완료되면 천사마을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구도심 주민들의 주거복지 실현하는 것은 물론, 칙칙한 노후담장이 산뜻한 로드갤러리로 탈바꿈됨으로써 밝고 쾌적한 마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올해 국토부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전주시 건축행정 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8년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에서 건축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도내 지자체 중 우수기관에 선정된 곳은 전주시가 유일하다.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는 국토교통부

가 자치단체 건축행정의 건설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올해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건축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합리성 등의 분야별 실적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평가한 이번 평가에서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위순위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전주시 건축심의위원회의 투

명하고 공정한 운영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 △신속한 건축신고·허가업무 처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안재정 시 건축과장은 "혁신도시와 예코·만성·효천지구 등의 개발로 인해 급증한 건축행정에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순창경찰, 도내 경찰서
최초 '인권위원회' 발족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가 도내 경찰서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위원회'를 발족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최근 시대적 국민요구에 맞춰 인권경찰서 확립을 위해 대학 교수, 법무사 등 민간인 8명으로 구성, 앞으로 지역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경찰 행정에 있어서 자문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대 순창경찰서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 정문재 위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형식의 참여를 통해 순창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